

Japan Weekly Digest

2011. 11. 26. ~ 12. 02.

☐ 금주의 이슈

- 경산성 경제비전 제시
- OECD, 일본에 긴급제언 : TPP 참가 촉구 등

☐ 일본기업전략

- 히타치건기·닛산자동차, 산업혁신기구 출자로 사업 통합
- 일본의 조선·중기업계 양산품은 호조, 수주품은 고전
- 소지츠사 인도에 공업단지 건설

☐ 경제산업성 동향

- 발전효율 세계 최고수준의 석탄화력발전소 개발 착수
- 일본·호주간 FTA 재개 결정
- 에다노 경산대신, 불합리한 조세 개선 노력

☐ 보고서 리뷰

- 일본재생을 위한 검토과제 :
산업구조심의회 신산업구조부회 중간정리



협회 한일경제협회

Korea-Japan Economic Association

※ 자료제공 :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

※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http://www.kje.or.kr>)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사오며,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02-3014-9888)

◆ 금주의 이슈

□ 경산성 경제비전 제시

- 경제산업성은 내수확대와 글로벌 수요확보를 위한 정책지원을 통하여 2020년까지 국내소비 15조엔, 고용 390만명 창출을 목표로 하는 경제비전을 제시. 의료·보육, 에너지, 농업·식품 등을 중점산업으로 육성, 규제완화나 세제 우대 등으로 산업공동화를 막아보겠다는 것이 골자
- 이와 같은 내용은 경산성의 자문기관인 산업구조심의회 산산업구조부회의 중간정리안의 골자로서, 내년 중반까지 국가전략회의에 제출하여 일본재생전략으로 반영할 예정임
- 구체적으로는 건강·보육 관련 서비스, 의료기기 등 「의료·보육 산업」, 스마트 커뮤니티 관련·에너지절약기기 등 「에너지산업」, 콘텐츠, 관광, 농업 등 「크리에이티브산업」 등 3개 분야
- 이들 3개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지원을 통해서 약 36조엔에 달하는 국내총생산 증가, 2011~2020년 기간중 연평균 1.5%정도의 경제성장을 달성을 기대 (방치할 경우 경제성장은 0.2%정도)
- 한편, 고용은 2020년까지 약 480만의 실업자 발생이 우려되나 이와 같은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실업자수를 90만명 정도 감소시킬 수 있는 외에, 이같은 정책이 실시되지 않는 경우, 2010년 후반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할 우려도 있는 것으로 전망

□ OECD, 일본에 긴급제언 : TPP 참가 촉구 등

- OECD는 11월 28일 발표한 Economic Outlook에서 일본에 대해서는 재정재건 가속화와 함께 TPP 참가를 촉구
- OECD는 일본의 매우 높은 수준의 재정적자나 공적채무를 문제시하고 재정건전화계획이 최우선과제라는 분석결과를 내놓음. 또한 디플레이트의 장기화를 지적, 일본은행에는 실질적인 제로금리정책을 계속할 것을 요구
- TPP에 대해서는 글로벌경제하에서 일본의 FTA 추진이 경제성장을 가속시킬 것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자본이나 노동분야의 장벽 제거도 같이 주문

◆ 일본기업전략

□ 히타치건기·닛산자동차, 산업혁신기구의 출자로 포크리프트사업 통합

- 히타치건기와 닛산자동차가 사업통합에 합의. 통합회사 주식의 과반은 관·민편 드인 산업혁신기구가 취득, 산업혁신기구의 출자액은 250억엔~300억엔 정도
- 향후 일본내 포크리프트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국 등 신흥국 시장 개척을 위한 경영기반 강화전략의 일환임. 산업혁신기구는 출자를 통하여 물류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등을 지원
- 2010년 포크리프트의 일본시장점유율은 히타치건기가 8.4%로 제4위, 닛산자동차는 6.8%로 제5위, 양사의 통합으로 시장점유율이 15.2%로 코마츠에 (16.4%) 이어 제 4위로 랭크
- 히타치건기는 2009년 TCM을 자회사화, 닛산은 2010년 10월 포크리프트사업을 분사화했으나, 양사 모두 단독으로 수익을 개선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통합에 의해 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산업혁신기구의 출자를 받아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 일본의 조선·중공업계 양산품은 호조, 수주품은 고전

- 일본의 대형 조선·중기메이커들이 신흥국 등 해외수요에 증가에 힘입어 자동차부품이나 공작기계 등 양산품사업을 중심으로 수익을 높이고 있음. 선박, 플랜트 등 수주형 사업은 아시아기업들과의 경쟁격화와 엔고의 영향으로 부진
- 조선·중기메이커들의 제품은 수주품과 양산품으로 구분되는데, 양산품은 공작기계, 건설기계 및 동부품 등이 중심. 이들 분야에서 일본기업들이 해외기업들에 비하여 기술면에서 우위에 있고 세계시장점유율이 높은 제품이 많음
- 카와사키중공업의 경우 유압기기, IH는 자동차용 터보, 미쓰비시중공업은 중소형 엔진, 스미토모중공업은 유압쇼벨 등 양산품 분야에서 수익을 크게 높이고 있음

□ 소지츠사 인도에 공업단지 건설

- 일본 소지츠사가 인도에 현지 자동차메이커와 공동으로 약50개사가 입주할 수 있는 공업단지를 설립. 인도에서 일본계 기업이 공업단지를 운영하기는 처음으로 향후 인프라를 정비, 일본기업들을 유치할 계획
- 인도의 머더선그룹이 66%, 소지츠가 34%를 출자, 「소지츠머더선공업단지」를 첸나이시 남서부에 건설, 총사업비는 약 50억엔으로 주로 자동차, 전자부품, 건설기계메이커들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

◆ 경제산업성 동향

□ 발전효율 세계 최고수준의 석탄화력발전소 개발 착수

- 경제산업성은 중국전력, J과워와 공동으로 발전효율이 세계 최고수준인 신형 석탄화력발전소 개발에 착수. 석탄을 가스화하여 발전하는 석탄화력에 연료 전지를 조합시키는 점이 특징
- 발전효율은 통상 석탄화력이 최고 약 42%인데 비하여 신형 발전소는 55% 이상으로 이산화탄소(CO2)배출량을 감소. 내년부터 히로시마현내에 시험플랜트를 건설, 2020년부터 최초 실증시험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음
-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영향으로 원전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 전환에 발맞춰 개발을 서두르게 된 것으로, 발전효율이 높을수록 CO2배출량은 감소. 석탄화력의 발전효율을 높힘으로써 지구온난화대책과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거두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대
- 새로 개발되는 석탄가스연료전지복합발전(IGFC)은 현재 실용화되고 있는 최고수준의 고성능 석탄화력발전과 비교하더라도 CO2량을 약 30%정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일본·호주간 FTA 재개 결정

- 일본과 호주가 12월중 10개월 채 중단된 ETA교섭을 재개기로 결정. 호주는 TPP의 교섭참가국인 만큼, 일본으로서는 농업분야가 초점이 되고 있는 일·호 EPA가 TPP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음
- 일본과 호주간 EPA교섭은 2007년에 시작했으나 대지진의 영향으로 중단, 11월의 일·호주 정상회담에서 재개하기로 결정. 일본내에서는 TPP를 겨냥하여 호주와의 FTA 교섭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함
- 다만, 농산품에 대한 관세철폐문제를 놓고 이해가 엇갈리고 있는 일본과 호주가 같이 참가하는 다국간 TPP와 그전에 일본과 호주만이 참가하는 양국간 EPA에 어떻게 조정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로 되고 있음

□ 에다노 경산대신, 불합리한 조세 개선 노력

- 에다노 경산대신은 11월28일 화학업계 5단체 대표들과의 회담에서 「재임기간 중 이치에 맞지 않는 세제는 전부 바꾸도록 노력하겠다」며 조세특별조치 개정을 재정당국에 요구할 생각임을 표명
 - 이것은 화학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납사에 대한 면세의 항구화를 지원하는 발언

◆ 보고서 리뷰

『일본재생을 위한 검토과제 : 산업구조심의회 신산업구조부회 중간정리』

경제산업성, 11월 30일

□ 일본경제에 대한 진단

- 현재 일본경제는 축소균형·폐색상태, 부가가치의 창출·확대체제로 전환하지 않는 한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진단
- 이러한 상태를 방지할 경우 ▷엔고에 의한 공동화, ▷경상수지 적자화 등 거시경제를 교착시키는 2가지 위험에 직면
 - 소재형 산업을 포함한 서플라이 체인 전체가 급격히 해외이전
 - 저축·투자균형이 빠르면 2010년대 후반에 적자화

□ 정책적 대응

1. 방어형 공동화대책과 적절한 거시경제운영

- 엔저 국면으로 전환되기까지 방어형 공동화대책과 적절한 거시경제 운영이 필요

(1) 방어형 공동화대책(급격한 공동화 방지)

- 엔고대책·국내입지지원책 등을 연단위로 대책으로 점검하고, 차세대(취득·보유단계의 과세)를 개선하여 국내시장을 활성화
- 법인실효세율 인하, FTA추진 등 국내 사업환경의 국제적 조화(equal fitting)

(2) 적절한 거시경제 운영 : ▷디플레이 극복, ▷일방적인 엔고시장·급격한 엔고에 대응

2. 공격형 공동화대책

(1) 대책추진 중점 분야

- 국내 잠재수요를 개척할 수 있는 분야 : ▷헬스케어산업(의료·간병, 건강관련), ▷신에너지산업(축전지·절전서비스), ▷크리에이티브산업(농업·식품 등 지역자원)
- 환율변동에 강하고 글로벌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분야 :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분야(인프라, 차세대 자동차 등), ▷높은 브랜드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 ▷글로벌니치탑(Niche Top)분야(고기능소재, 부품 등)

(2) 정책적 지원방향

- 잠재적 내수를 개발할 수 있는 신산업창출, ▷글로벌 수요의 확보, ▷기술혁신, ▷금융자산의 효과적 활용촉진, ▷산업구조전환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인력기반 구축

□ 기대 효과

- 「공격형 공동화대책」의 효과는 2011년도~2020년도 기간 중 연평균 실질 GDP성장율을 1.3%포인트 높이고, 실업율을 1.5%포인트 감소 효과 기대

【금주의 일본 주요보고서】

- (1) 『태국의 홍수가 일본경제에 미친 영향에 관한 논점 정리』 일본내각부, 11월29일

*출처: http://www5.cao.go.jp/keizai3/monthly_topics/2011/1125/topics_1.html

- (2) 『세계경제위기는 심각, 재정금융정책으로 기업활력을』 경제산업연구소, 11월29일

*출처: <http://www.rieti.go.jp/jp/papers/contribution/nakajima/01.html>

- (3) 『일본재생을 위한 검토과제 : 산업구조심의회 신산업구조부회 중간정리』 경제산업성, 11월 30일

*출처: http://www.meti.go.jp/committee/sankoushin/shinsangyou/004_02_00.pdf

- (4) 『지방세·재정면에서 본 일본경제의 과제』 21세기정책연구소, 12월2일

*출처: http://www.21ppi.org/pdf/thesis/111130_02.pdf

- (5) 『세계경제 금융위기 후 모노즈쿠리 현황과 전개에 관한 조사보고서』 일본기계공업연합회, 12월2일

*출처: http://www.jmf.or.jp/japanese/houkokusho/kensaku/pdf/2011/22tenbou_y01.pdf

- (6) 『협동조합의 새로운 자리매김: 사회적 경제로서 협동조합의 존립방향』 농림중금중합연구소, 12월2일

*출처: <http://www.nochuri.co.jp/report/pdf/n1112re3.pdf>